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본격화

운봉읍 공안리 일원 3년간 120억 투입 생태관광거점시설 내년 10월 착공...숙박시설·생태숲·캠핑장 등 인프라 구축

남원시가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20억원을 투자해 운봉읍 공안리 일원에 생태 체험·교육과 체류가 가능한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숙박시설, 생태숲 정원, 캠핑장, 야외무대 등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

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관광거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생태관광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획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

역 등 각종 용역을 2025년 8월까지 완료해 당해 10월에는 본 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더불어 지역 내 또 하나의 생태관광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사업은 지리산의 천혜 자연환경과 백두대간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 명소로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의료기기 업체 '스터리바이오' 남원에 120억 투자

남원산단 입주...투자협약

남원에 의료폐기물 멸균처리기 소형화 개발에 성공한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동지를 예정이다.

남원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난 2일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1만5000여㎡에 입주, 120억원의 투자를 확정된 (주)스터리바이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경식 시장과 스테리바이오코리아 최희영 대표를 비롯해 향후 기술과 자본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중국 스테리바이오 과학기술 유한회사 조쑤이 사장과 아몬메드바이오텍 양성 부사장이 참석했다.

스터리바이오코리아는 중국 스테리바이오사와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자동화 장비 소형화에 성공 기업으로 의료기기 멸균처리기와 체외 진단키트의 생산공장을 남원일반산단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화장비는 투입 챔버에 최신 미약음압장비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용 멸균약제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ilac MRA를 통해 사멸 및 안전성 테스트시험을 완료했다.

안전성은 물론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으로 국내 의료시장 진입과 동



지난 2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의료기기 제조 업체 스테리바이오코리아와 투자협약식에서 조쑤이(가운데) 남원시장, 스테리바이오코리아 대표 최희영(가운데) 남원시, 스테리바이오 조쑤이 사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시에 의료기기산업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멸균약제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멸균약제보다 기술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9999%까지 사멸할 수 있으며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외진단키트장비 전문 제조회사인 중국 아몬메드바이오텍과 기술제휴를 통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진단키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 진단키트 등도 관계기관의 등록을 통해 제조·생산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 중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모범음식점 업소 70곳 추가 선정

11일까지 신청...상하수도료 감면·시 공식 SNS 홍보 등 혜택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11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정할 모범음식점은 총 1416개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인 70개 업소가 대상이다.

모범음식점은 깨끗한 위생 관리, 바람직한 음식 문화 개선,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 여러 세부 기준

을 충족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지역의 외식업 품질을 한층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상·하수도료의 30%가 감면되며,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과 더불어 시 공식

SNS를 통한 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손희경 정읍시보건소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외식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외식문화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민·관 협력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정읍시장애인복지관-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등 공동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은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수성동에 거주하는 중도 신장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수성동, 자원봉사센터, VIP봉사단, 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 지구 남지방 정읍녹두클럽과의 공동 노력으로 진행됐다. 대상 가정은 40여년을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지만,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면서 가사와 일상생활 모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 자녀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과 함께, 장

에 수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복지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관은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해 민·관 협력 해결 방안 회의를 긴급히 소집,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와 기타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욕실 개보수, 도배, 장판, 물딩 교체 등을 진행했다. 또 복지관의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대청소도 함께 실시해 가정을 말끔히 정리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올해 공공비축미 신속 매입

6일부터 8155t...멸구 피해 확산 방지 농가 피해 최소화

고창군이 오는 6일부터 벼 재배농가의 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신속 추진한다.

고창군의 올해 공공비축미 품종은 신동진과 수광 2품종으로 산물벼는 신동진을, 포대벼는 신동진과 수광을 수매한다.

산물벼는 멸구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신속히 6일부터 1935t 매입하며, 포대벼는 16일부터 6220t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으로 수매직후 3만원(40kg)을 농가에 지급한다. 최종 정산금은 연말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올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매입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벼 재배농가의 피해방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확대

18일까지 대상자 추가 모집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핵심 공약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기준과 대상을 완화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뒤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